

기후변화, 얼마나 심각한가요?

IPCC 제5차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추세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21세기 말에는 지구의 평균기온이 3.7℃, 해수면이 63㎝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이로 인한 태풍, 폭우, 폭설, 가뭄, 산불, 사막화 등 자연재해가 이전 보다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인류는 이로 인한 생태계 파괴, 식량과 식수 부족, 각종 질병 발생 등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IPCC는 이런 기후변화의 주된 원인이 온실가스에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표적인 온실가스의 하나인 이산화탄소(CO₂) 농도는 2011년 391ppm으로 산업화(1750년) 이후 인간활동에 의해 40%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IPCC는 인류는 기후변화를 제한할 수단을 갖고 있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이에 대응하려는 의지라고도 강조했습니다.

-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는 1988년 기후변화와 관련된 전 지구적 위험을 평가하고 국제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WMO(세계기상기구)와 UNEP(유엔환경계획)가 공동으로 설립한 기구입니다. 기후변화와 관련한 데이터 수집, 과학적인 분석과 전망 등을 1990년 이후로 5~6년 단위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 온실가스는 지구에서 벗어나려는 태양에너지를 흡수해 지구의 온도를 유지 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양이 너무 많아지면 식물원의 온실처럼 점점 더워지는 온난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온실가스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 중 이산화탄소의 양이 압도적으로 많아 이를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GCF (녹색기후기금)는 어떻게 탄생되었나요?

GCF는 이렇게 현실화 되고 있는 재난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탄생하였습니다. UNFCCC는 제15차 당사국 총회(2009.12,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재원을 모으고 이를 운영할 기구의 필요성을 논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해 개최된 제16차 총회(2010.12, 멕시코 칸쿤)에서 GCF를 설립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GCF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GCF 제2차이사회(2012.10)에서 독일, 스위스 등의 도시들을 제치고 사무국을 인천 송도에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준비과정을 거쳐 2013년 12월 4일 국내외주요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역사적인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 UNFCCC(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유엔기후변화협약)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온실가스의 인위적 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1992년 6월 UN환경회의에서 채택되었고 1994년 3월 발효되었습니다. 현재 196개 국가가 회원으로 가입(한국은 1993년에 47번째로 가입)하고 있으며 GCF의 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GCF (녹색기후기금)는 무슨 일을 하나요?

선진국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경제성장을 이뤘기에 지구온난화에 대한 책임이 큽니다. 반면 최저개발국가, 군소도서국가, 아프리카 국가 등은 상대적으로 그 책임은 덜 하면서도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에는 더 취약합니다. 그래서 GCF는 선진국 등으로 부터 기금을 모아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는 일을 합니다.

- 적응은 기후변화가 인간의 건강과 자연환경에 주는 위험을 줄이는 활동으로 전염 병 예방, 농수산 품종과 재배기술 개발, 홍수예방과 물관리 대책 등이 있습니다.
- 감축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거나 제한하는 활동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기술과 설비 등을 개발도상국에 이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GCF는 기금을 어떻게 조성하고 있나요?

GCF는 이사회를 거듭하면서 초기재원 조성에 필요한 사업모델 (운영체계)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재원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GCF는 초기에는 선진국 등으로부터 무상지원이나 양허성차관을 받고 점차 민간부문으로부터 투자를 받는 등 재원의 형태를 다각화하고 금액을 늘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초기재원으로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이 공여를 약속했고, 우리나라와 멕시코를 비롯한 몇몇 개발도상국도 기금 공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GCF는 이렇게 조성된 기금을 가지고 2015년부터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 많은 개발도상국은 국제사회로부터 지원을 받던 나라에서 지원하는 나라로 발전한 한국의 성장모델을 닮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이를 잘 활용하여 기후변화와 관련 기술과 자문 등을 통해 GCF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 GCF 본부도시로서 인천은 뉴욕, 본, 브뤼셀, 제네바 등과 같이 국제도시로 발돋움해야 합니다. 기후변화와 관련한 정책들을 개발하고 시민들과 함께 모범사례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시는 이를 위해 「인천녹색기후포럼」이라는 민관협력체를 출범시켰습니다.
- GCF의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기구의 규모는 계속 커 갈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더 많은 직원과 동반가족이 체류하면서 소비가 인천에서 이뤄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회를 비롯한 각종 회의가 열릴 것입니다. 그러면 마이스(MICE)산업에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됩니다.
- GCF와 기후변화 등을 지역사회에 알릴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나아가 사무국 직원들이 지역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GCF라는 성장 가능성이 큰 국제기구의 본부를 유치한 도시만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일 것입니다.





내가 먼저 실천하는 **녹색생활**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인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작은 생활습관 하나가 저탄소 녹색사회의 밑거름이 됩니다.

지혜로운 녹색생활 실천, 작은 일부터 지금 시작하세요.



실내온도를 적정히 유지합니다.

[1도의 비밀] 난방을 1도 낮추면 가구당 연간 231㎏의 CO₂가 줄어듭니다. 실내 적정온도 여름철 : 26 ~ 28℃ 겨울철 : 18 ~ 20℃



물을 아껴씁니다.

[Speedy 샤워] 샤워시간을 1분 줄이면 CO₂ 7kg이 줄어듭니다. [양치컵 사용] 양치컵 사용으로 물 사용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친환경제품을 구입합니다.

[착한 선택] 녹색소비는 자원을 절약하고 온실가스도 줄여줍니다.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합니다.

[대형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이용] www.edtd.co.kr. 🕾 1599-0903



전기제품을 올바르게 사용하여 에너지를 절약합니다. [플러그 OFF]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의 플러그를 뽑으면 일년 중 한달 전기료는 공짜입니다.



환경과 경제를 살리는 친환경 운전을 실천합니다.
[생각해 보고 실천하기] 경제속도로 운전하기, 3급(급발진, 급가속, 급감속) 하지 않기, 불필요한 공회전은 그만, 자동차를 가볍게 하기 정보운전(GPS 등 이용) 하기 등등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를 생활화합니다.

[생활 속 온실가스 줄이기] 승요차 요일제 준수(455.2kg), 보일러 사용 1시간 줄이기(135.5kg), 자전거 이용하기(27.5kg), 그린터치 사용하기(22.5kg) 등으로 CO₂ 줄이기를 실천합니다.



아낀 만큼 돈이 되는 탄소포인트제도 이용하기
[환경도 지키고 돈도 벌고] 가정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면
감축실적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상정하고 환경부, 지자체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감축 프로그램입니다. http://www.cpoint.or.kr



퀴즈로 풀어보는 기후변화와 GCF에 대한 핵심사항입니다. 생각이 잘 떠오르지 않으면 앞에 내용에서 찾아보세요.

- 2. (은/는) 기후변화가 인간의 건강과 자연환경에 주는 위험을 줄이는 활동을 말합니다. 전염병 예방, 농수산 품종과 재배기술 개발, 홍수예방과 물관리 대책 등이 있습니다.

(은/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거나 제한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기술과 설비 등을 개발도상국에 이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 3. 는 지구에서 벗어나려는 태양에너지를 흡수해 지구의 온도를 유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양이 너무 많아지면 식물원의 온실처럼 점점 더워지는 온난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 4.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은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재원을 모으고 지원할 기구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2010년 칸쿤 당사국총회에서 GCF를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GCF 제2차이사회(2012.10)에서 사무국을 에 두기로 결정하고 에 두기로 결정하고 에 들어 일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 5. 저탄소 녹색생활을 위해 각자 실천할 수 있는 사항으로 무엇이 있을까요?(세가지 정도 적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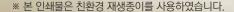
Green Climate Fund

녹 색 기 후 기 금

GCF는 저탄소 · 기후회복력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경로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금융기구입니다.







인천핑역시 Incheon Metropolitan City